



발행일 2014.7.4.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62-1 2층
 웹 pajinbo.net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팩스 062-443-0519

여는 글	마침내 승리했다! 피땀으로 건설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정세초점 하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다
정세초점 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다
건강한 일터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세요
책 소개	저항을 기억하는 방식 『소년이 온다』 리뷰
회원고민	다 내 맘 같으면
지역소식	금속노조 ATK 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활동보고 / 계획	월레포럼, 연속기획: 푸른 길을 걷다

마침내 승리했다!

피땀으로 건설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76년 무노조 삼성에서 민주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지난 6월 28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센터들에 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 기준협약(센터별 단체협약의 기준이 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총을 내세워 협약 서명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비서실) 사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이 교섭을 지휘한다는 걸 내비쳐, 삼성과 금속노조가 협약의 당사자임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켰다.



백년 갈 튼튼한 노조로 만들자!

열사의 염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강화하자

물론 삼성에 민주노조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최종범 열사 투쟁 55일, 염호석 열사 투쟁 45일 도합 100일 가까이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해야만 했다. 쟁의권이 생긴 올해 초부터는 총파업, 게릴라파업, 순환파업 등 안 해본 파업전술이 없었고, 투쟁의 최전선이었던 남부지역에서는 일한 날보다 투쟁한 날이 많을 정도로 파업이 잦았다. 노조 일을 돌봐야 하는 간부들의 수입은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월 5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조합원들도 예년보다 급여가 크게 줄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 모든 탄압과 시련을 이겨내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설립 350일 만에 마침내 그 '삼성'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다윗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골리앗 삼성을 꺾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두 가지 무기를 얻었다. 하나는 당연히 단체협약으로 더 탄탄해진 노조 그 자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센터 사장들은 노동인권은 고사하고, 현행법도 밥 먹듯이 어기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시간 외 수당, 법정 휴게 시간, 연차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최저임금 등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일처리율 등 임의성이 강

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모독했다. 이제 72개 조항으로 된 단체협약과 삼성 본사를 상대로 승리한 노조의 힘을 통해 사장과 관리자들의 반인권적 노동통제를 규제할 것이고, 탈법적 관행들을 없앨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임금협약이다. 건당 수수료제는 이번에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건수와 평균 수수료를 명시함으로써 급여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 대다수는 급여 명세서 내역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제부터 매년 진행되는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변동급인 건당 수수료 내역을 검증한다면, 노조가 요구했던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점차 변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주도해 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센터 간의 거래 내역과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여체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다. 현재 통합수수료 체계의 극단적 불투명성은 무슨 임금체계를 만들더라도 바지사장이 중간 수탈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교섭 체계의 혼란은 앞으로 지회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지회에 대해 센

터 사장들은 올 초에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했고, 몇 개 지부에서 경총과 집단교섭을 벌였지만 수개월 동안 공전을 반복했었다. 실권 없는 바지사장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이 삼성의 눈치와 지시를 받으며 제대로 교섭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 이 방식으로도 최대한 입장을 좁혀보려 했지만, 결국 염호석 분회장이 자결하고, 45일간의 삼성 본사 앞 노숙농성 투쟁이 진행된 후에야 부족하게나마 폐업센터 대책,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삼성에서 노조를 세우고 굳건하게 키우는 일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만의 몫이 아니다. 한국 사회 진보진영 모두의 역할이다. 삼성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한 기업의 수준을 넘어서듯,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역시 그 역할을 사업장 내에서만 찾을 수 없다. 시민 모두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이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이 노동권을 지키는 시민 중의 시민이다.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가 하늘에서 지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회를 백년 이상 너끈히 견뎌낼 강한 노조로 키워낼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사드(THAAD) 한국 배치 검토 왜 문제인가?

정책선전위원회

고지 점령

사드(THAAD) 시스템은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권 안과 밖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

인구 밀집지역과 값비싼 사회기반시설을 방어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상호 운용

전 세계에 쉽게 이동 및 배치 가능

미사일 요격

이 시스템은 비행 시험에서 임무를 100% 성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험 발생

1

레이더

2

TFCC

사드 발사 통제 및 통신 지원 장비

3

발사대

100% MISSION SUCCESS

1

레이더가 위험 발생 감지

2

목표 식별 및 추적

3

트럭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요격체 발사

4

요격체의 운동에너지로 미사일을 파괴

▲ 사드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 사의 웹 홍보물(번역)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 28일자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고(高) 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ce)’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한국에 사드 부지를 검토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으며, 사드를 일시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한국이 구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이를 곧바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사드는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해 40~150km의 고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발사체, 레이더 등은 지상에서 이동할 수 있고, 수송기를 통해 세계 어디라도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천 km에 달한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겨냥해 일본 내 기지 두 곳에 이 레이더를 배치해 놨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완성을 위해 중국과 더 가까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길 바라고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중”이며,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사드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완벽한 방어체계라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

첫째, 미사일방어체계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미국은 핵 선제공격 전략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작년 6월 19일 미국이 발표한 ‘핵무기 사용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잠재적 적국에 대항하는 선제 응징 능력을 유지하며, 결코 등가보복 전략 또는 최소억제 전략에 의존하지 않는다. 선제응징 전략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용어를 쓰자면 ‘예방적’ 또는 ‘공격적으로 반작용’한다. 2010년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평가 보고서’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무기로 미국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미사일방어체계는 신무기 개발과 도입을 촉진한다. 주변국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신무기 개발 압력을 받는다.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반면 이를 돌파하는 미사일 개발은 이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수월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는 창과 방패처럼 항구적인 무기개발 경쟁을 일으켜 핵무기 감축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방어능력에 대한 확신은 전쟁을 또 하나의 선택지로 만든다. 핵이라는 절멸의 무기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완벽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공고해질수록, 전쟁은 국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계획 아래 동아시아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이 동맹국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이란 명목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미국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이를 지지했다. 뿐만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춘다며 내년부터 사드급 요격미사일 개발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며 군비경쟁에 발 벗고 나섰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군비는 증가하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대중의 힘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출처 : 세계일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다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광주전남지부 운영위원회



국도 1호선 장성 도로변 한 선생님이 비를 맞으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땅끝 해남의 교차로. 학교를 퇴근한 선생님들이 피켓을 들고 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하겠습니다”, “교육도 사람이 먼저! 학교 혁신을 꽃 피우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기에, 6만 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6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법외노조라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IEU)과 국제노총(ITUC)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IEU)과 국제노총(ITUC)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달 24일과 27일 각각 발표했다. IEU는 성명에서 “퇴직자와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된 일인데 한국의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며 “퇴직자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노조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외노조라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하는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가 15년 넘게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굳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며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인 것이다.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오랜 세월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

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또 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치는 것이다.”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현실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밀양 송전탑, 국무총리 인신, 의료-철도 민영화 등 온 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폭압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이윤을 위해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가는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은 무엇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교육,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전교조를 함께 지켜야 한다.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세요

문길주 |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백화점, 마트에는 각종 음식에서부터 생필품, 전자제품, 옷 등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시민들이 한 달에 1-2번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의 음식과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한다. 광주에는 대형마트 약 17개, 백화점이 3개 정도 된다. 1개 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가 3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광주의 마트, 백화점에는 약 6,000명 넘는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날마다 서서 작업을 하고, 손님들과 마주 치면서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을 때 외쳤던 구호였다. 이러한 구호와 캠페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렇다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는 종사자 및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될까? 해당된다면, 이들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은 백화점 등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자.

먼저, 마트 및 백화점 계산직 종사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와 작업공간과 휴게공간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작업 중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가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수시로 앉을 수 있는 작업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대형마트는 근골격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반복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

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된다.

신체부위	분당반복작업기준
어깨	2.5회 이상
팔꿈치	10회이상
손목/손	10회 이상

현재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77조에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 중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종사자 및 노동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작업의 피로를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주 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는 의자만 배치되어 있고, 실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덜어주는 교육, 예방프로그램, 유해요인조사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백화점, 마트를 방문할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먼저 건네 보자.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도 빠트리지 말고.

저항을 기억하는 방식

『소년이 온다』 리뷰

현백 | 회원



그동안 5.18과 관련된 콘텐츠들은 꽤 많이 등장했다. 그 중 몇몇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800만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강풀의 ‘26년’은 웹툰 연재 당시 매회 평균 200만의 조회 수를 기록, 영화화 되어서도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상업적, 대중적 관심은 적었

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은 시,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등도 꾸준히 나왔다. 이 모두가 5.18을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한명인 한강의 신작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2014.5.19. 창비)가 더해졌다.

앞서 등장했던 콘텐츠들과 『소년이

온다』를 포함하여 5.18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은 항상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맞닥뜨린다. 국가에 의해 살해당한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필연적으로 과거가 되어버린 그 죽음을 현재의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는가? 두 질문은 결국 과거의 저항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왜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

첫 번째 질문. 국가에 의해 살해당한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들은 첫 발포와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쟁에서 사망한 10대들, 그리고 현장에 있었으나 살아남아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 이렇게 두 그룹이다. 특히 전자의 그룹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작가의 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이외에도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죽음은 어떤 이념에 심취한 이들의 순교가 아니다. 그 대신 작가는 순진무구하고 비정치적인 소시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비극을 전면에 내세웠다.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해 천변을 건다가 갑자기 나타난 계엄군의 오해에 의한 죽음, 우연히 시위에 휘말렸다가 총탄에 살해당한 10대들의 죽음, 그 납득할 수 없는 죽음들 앞에서 의문에 몸을 맡기고 시민군에 합류한 이들의 죽음. 5.18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잔혹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 없는 무차별성에서 극대화되지만, 작가의

선택에 따른 결과,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5.18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역사적 맥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는 대신 보편적 인간애가 자리 잡는다. 그런데 이는 5.18 이외에도 많은 저항들을 옹호할 때 택해지는 전략이다. 모든 저항들은 ‘비정치적 순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은 정치적 선동으로 비하되고, 정치적 슬로건은 사안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들의 죽음은 극대화되지만 요구는 최소화되며, 정치적 부채는 도덕적 부채로 전환된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왜 5.18을 기억해야 하는가

과거의 저항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와 어떤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작가는 5.18 당시 광주를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라고 명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용산은 광주와 같다고 선언한다. 5.18의 비정치적 순수성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작가는 광주와 용산이 어떤 정치적 공통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신 인간에게 내재된 폭력이 예외적으로, 또는 숙명적으로 발현된 순간이 갖는 참혹함이 양자의 공통분모로 남는다.

그래서 작가는 “인간은 무엇이든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5.18을 이정표로 삼고자 한다. 이제 5.18은 특정 역사적 시점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저항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이정표가 된

다. 폭력의 잔혹함과 대비되는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모습들 - 자발적인 헌혈, 질서의 유지, 병원 앞에 부상자를 몰래 내려놓는 공수부대원 등은 그 이정표의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저항을 기억하는 방식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저항들을 돌아보자. 저항에 참여했던 이들이 과연 동일한 신념과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의식적으로 요구하였던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동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심지어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작가의 선택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존재한다. 5.18 뿐만 아니라 어떤 저항이든,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치적 사건과 요구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유치한 프로파간다의 연장선상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저항이 참여자들의 개인적 의식과 의도된 요구를 넘어서서 시대에 특정한 정치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저항인지 아닌지, 저항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체제의 아픈 곳, 약한 곳을 건드리는가에도 달려있다. 1800년대 새롭게 등장한 기계를 파괴하던 러다이트 운동이 개인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저항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자본주의 하에서 노조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저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성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는가는 또 다른 맥락일 것인데, 우리가 저항의 성과와 한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어떠한 저항이든, 구체적인 정치가 제거되고 나면 그것은 이분법적인 선악의 대결, 또는 도덕적 교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치적 부채의식이 사라지고 나면 폭력의 잔혹함을 목도한 이의 도덕적 부채만이 남는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세대들은 물을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도덕적인 부채에 허덕여야 하느냐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체제는 우리가 5.18을 기억하는 방식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 내 맘 같으면

김강석 |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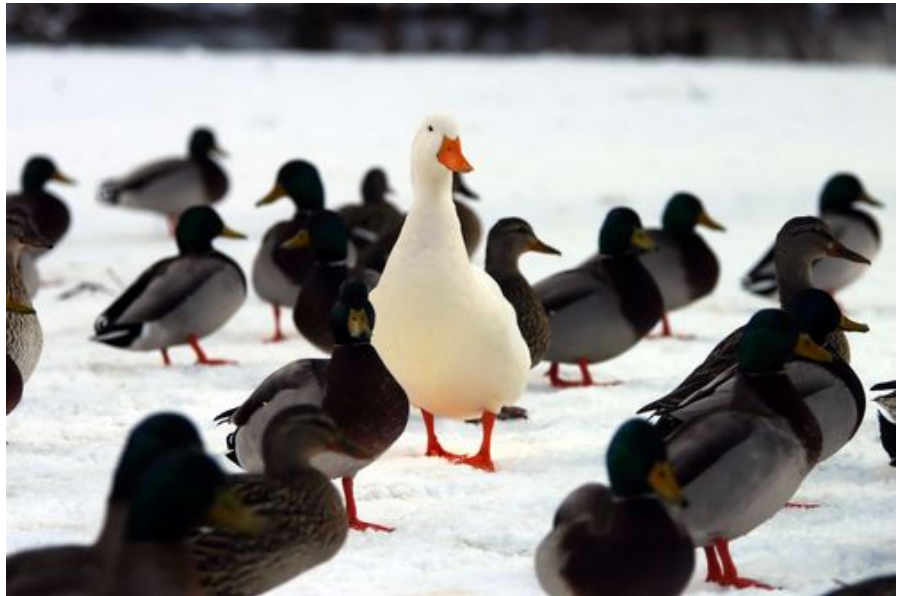
한 달 전에 글쓰기 부탁을 받고 도무지 글머리나 주제가 떠오르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던 터에 엇그제 그 ‘글쓰기 부탁’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뭔가 글을 쓰긴 써야겠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글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최후의 날짜인 이제서야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정리되지도 않은 ‘다 내 맘만 같으면’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으면”이라는 생각이나 말들을 한다. 왜 세상 사람들은 생각들이 각기 다르고, 다르게 살아갈까?

나는 지금껏 살아오며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간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생각과 활동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그에 관한 많은 생각들로 골몰한다. 그 생각들은 주로 왜, 같은 노동자이며 조합원인 동료들이 ‘내 맘 같지 않을까?’이다.

물론 처한 조건과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같은 조합원으로 같은 처지, 같은 조건에,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리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실망하고 기운이 빠져 ‘에잇 내가 뭘 대단한 호사를 누리겠다고 이러나’ 하는 생각에 포기



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어디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기에 포기 할 수 없어 오늘날까지 잘되지도 않는 노동조합을 부둥켜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 요 근래에는 아파트자치회 일을 들여다보며 그런저런 생각들을 한다. 10여 년 동안 바뀌지 않던, 투명하지 못하고 독선적이던 이전 아파트자치회를 갈아엎자는 권유 끝에 여러 주민들이 새로이 출마하여 자치회를 바꾸었는데,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하겠다고 회장으로 밀어 달라던 그(?)가 2~3달도 안되어서 이전 대표들 못지 않게 몰아가는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을 보며, “참 내 맘 같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닌 세상일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맘 같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글을 쓰기 전 ‘다 내 맘만 같으면’이란 것에 대해 수도 없이 생각해 봤지만, 뽀족한 해답이 없다. 하긴 해답이 나왔다면 정말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텐데. 법도, 경찰도, 군대도, 정치꾼도, 노동운동도, 시민운동도 다 필요 없고, 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왜 안 그럴까?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는 나는 얼마나 “남의 맘 같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일까? 이 글을 보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도 나올 거 같아 무지 불안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금속노조 ATK 지회,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자!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ATK)는 첨단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다. 여기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ATK 지회가 있다. 전체 3500여명의 노동자 중 소수인 20여명의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를 지켜왔으며 최근에는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4월 초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려 했다. 매달 지급하던 보 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14시간을 없애려 한 것이다. 이것이 없어지면 1년에 3백만원이 넘는 임금이 삭감된다. 사측은 민주노조의 조합원이 소수인 점을 악용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비조합원들이 사측의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명한 것이다. ATK 지회가 임금삭감안을 거부하고 투쟁하자 사측은 비열한 방식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조합원 14명을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했고 이것도 모자라 지난 20일에는 이들에게 7월 21일자로 서울 성수공장으로 전출을 명령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해서 7월 1일부로 전임 해제를 통보했다. 인터넷에 임금삭감 반대 글을 올린 광주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버젓이 단체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노조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단체협약이 내년까지 유효하며 전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전임자 2명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노조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서울로 가겠는가?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ATK 지회는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사측의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비열한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마침내 염호석열사와 함께 정동진으로 가다



지역소식 · 활동보고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350일간의 치열한 투쟁이 마침내 성과를 만들었다. 76년간 무노조를 고수해온 삼성의 강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다. 28일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기준협약안’에 합의했다. 이에 지회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 있는 노숙농성장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87.5%의 찬성률로 이를 체결기로 결정했다. 정식명칭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 앞서 원청 삼성과 노조가 합의한 의견 일치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센터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어야 한다. 각 센터별로 조건이 다른 탓이다.

완벽한 승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최소 절반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을 교섭자리에 끌어냈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받았으며 염호석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삼성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바꿔낼 수 있었다. 350일 간의 투쟁,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다. 최중범 열사와 염호석 열사의 죽음, 삼성과 결탁한 경찰의 비열한 시신탈취, 41일 간의 노숙투쟁까지... 그리고 6월 30일, 마침내 염호석 열사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승리는 노동자들이 뭉치면 강고한 삼성자본에도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에 승리했다고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조직 확대·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염호석 열사 투쟁의 소중한 승리의 씨앗을 전국에 뿌려, 노동조합을 뭉쳐 부당한 현실을 바로 잡자.

[6월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 대학 구조조정의 역사와 진실을 파헤치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 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3개 단위가 모여 6월 24일 전남대에서 월례포럼 <대학 구조조정의 역사와 진실>을 진행했다. 대학에서 오로지 시장에서 잘 팔리는 학과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이 필수과정이 되어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방학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진 이들이 참석하여 4명의 패널과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라는 이름의 영어시험을 14학년 신입생들에게 강요했던 일이 있어 이에 반대행동을 조직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활동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연속기획 세 번째 이야기]

: 푸른 길을 걷다 / 7월 17일(목) 18시, 푸른 길 사무실



지난 4월 <잡배노동자 24시>, 5월 <광주드림으로 본 지역 언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배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5월에는 지역언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7월에는 푸른길 이경희 사무국장님과 함께 <푸른 길을 걷다>로 연속기획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생태운동을 해오면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생태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듣고 우리들이 해야 할 실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월 17일(목) 18시, 푸른길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연속기획 <푸른 길을 걷다>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와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